

우리나라의 시멘트工業과 外資

— 特히 財務構造分析을 통한 展望 —



韓國産業銀行 外國借款部

李 建 雨

한 나라의 經濟發展度를 測定하는 尺度로는 그 나라 國民의 一人當平均所得水準이 많이 使用되고 있다. 그러나 國民들이 每日의 生活을 營爲하는 住宅이, 그들을 살찌게 하는 生産工場이, 그리고 國民經濟의 血脈이라 일컬어지는 道路等이 그 어느하나도 시멘트 없이는 生覺될수 없을진텐 시멘트消費量 或은 그 生産量도 그나라 國民經濟의 發展度를 저울질하는데 있어서 主要한 指標가 된다고 하여도 결코 過言이 아닐 것이다

國民經濟의 發展과 더불어 國民總生産에 있어서 建設業의 比重이 增大한다는 事實은 곧 이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렇듯 鐵鋼業과 함께 國民經濟의 最低邊을 形成하고 있는 시멘트工業은 그 絶實한 緊要性에도 不拘하고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獨自的인 發展이 어려웠었다.

시멘트工業이 갖는 特徵의 하나인 資本集約의 大規模施設을 爲한 大量的 資本需要는 零細했던 民族資本으로서는 勘耐할 수 없던 것이었던 만치 最初의 시멘트工業의 孕胎가 日本帝國主義資本에 依해서 비로서 可能했고 獨立이 成就된 以後에도 國內에도 國內貯蓄의 不足과 雪上加霜으로 6·25 動亂의 灰燼은 더욱 外國資本에의 依存을 不可避하게 하였다.

周知하고 있는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最初의 시멘트工場은 1919年 12月 日本人의 손에 依해 180千^圓의 規模로 建設된 小野田 시멘트會

社平壤工場이 있으며 南韓에 있어서는 1942年 6月 역시 三菱系統의 日本資本에 依하여 建設된 84千^圓 規模의 小野田시멘트 三陟工場이었다.

國土分斷으로 三陟工場만이 唯一한 施設로 우리 손에 引繼되었으나 日帝末期 戰時의 無理한 稼動과 解放後 混亂期中 施設의 長期間放置로 全般的으로 施設이 老朽되어 運休狀態에 놓여 있었다.

休戰後인 1954年 UNKRA 資金 502,430弗에 依한 補修로서 年間 70千^圓을 生産하기에 이르렀고 다시 1959年 DLF資金 2,140千弗과 ICA資金 400千弗로 年産 360千^圓으로 生産規模를 大幅增大하였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東洋시멘트이며 이 DLF資金이 곧 우리나라에 있어서 最初의 外國借款인 것이다.

한편 우리의 主導下에 最初로 建設된 시멘트工場인 大韓洋灰(當時 聞慶시멘트) 역시 UNKRA 資金 8,991千弗의 援助에 依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렇게 初期에는 東洋시멘트의 DLF 資金을 除外하고는 大部分이 借款보다도 援助資金에 依해서 施設의 補修, 擴張, 나아가서 建設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1960年代에 접어들면서 經濟開發計劃이 本格的으로 着手되자 龐大한 資本需要가 나타나게 되고 이를 充足시키기 爲해서는 外國資本의 誘致가 緊切하였으며, 더욱기 外國의 無償

援助가 大幅 減少됨에 따라 그것은 더욱 切實하게 되었다.

이에 政府는 外資導入의 極大化를 爲해서 行政 및 稅制上의 優待措置를 講究하였으며 한편 韓日國交正常化와 함께 日本資本의 國內進出이 活潑하게 되어 借款先에 있어서도 從來 對美一邊倒에서 美·日·西獨等 그 幅이 크게 擴大되었다.

이러한 外資導入의 一般的 潮流는 다른 어떠한 製造業部門보다도 시멘트工業에 있어서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즉 1962年 第1次 5個年計劃이 着手되어 시멘트需要가 大幅增大하자 시멘트工業은 強力한 投資誘因의 要素를 形成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시멘트工業이 가장 重要的 戰略的 開發部門의 하나로 指目되어 이 部門에 集中的인 借款導入이 이루어졌다.

1968年 6月 1日 現在 시멘트工業建設을 爲해 이미 導入이 되었거나 혹은 導入이 確定된 外國資本은 財政借款이 3件에 9,142千弗, 商業借款中 政府支拂保證事業이 4件에 56,169千弗, 市中

韓國 시멘트工業의 外資導入現況

(1968.6.1 現在)

事業名	借款先	生産規模	借款額	利率	償還期間	協定締結日 字 또는 許 可 通告 日	備 考
財政借款		3件	9,141,564				
東洋시멘트 擴張	美 DLF	200千 \times	\$ 2,139,600	年 % 5.25	4年 3個月	59. 1.20	稼動中
現代시멘트 建設	美 AID	150千 \times	4,001,964	5.75	2年 据置 10 年	62. 7.13	〃 (10年据置 30年償還 分을 轉貸)
現代시멘트 擴張	美 AID	150千 \times	3,000,000	6.75	2年 10 年	66. 4.13	68年末 竣工豫定(〃)
商業借款(政府支保)		4件	\$ 56,168,896.25				
韓一시멘트 建設	西獨 Polysius	400千 \times	\$ 6,386,596.25	〃 6 〃	2年据置 5年	62.12.27	着手金 15%, 64.6.26 竣工
雙龍洋灰 〃	西獨 KHD	400千 \times	6,495,000	〃 6 〃	10年	62.12.27	着手金 15%, 64.4.16 竣工
忠北시멘트 〃	日 C. Itoh	400千 \times	5,137,400	〃 5 〃	2年据置7年	65. 3.26	66.12.31 竣工
雙龍大單位 〃	日 三 菱	2,000千 \times	38,149,900	〃 5.5 〃	1年半 8年半	66. 4.30	68年 10月 竣工豫定
商業借款(市銀支保)		5件	\$ 22,621,122				
東洋시멘트 擴張	日 三 菱	250千 \times	\$ 1,350,000	〃 5.75 〃	1年据置 5年 半	65.12.30	67.4.24 竣工
韓一시멘트 擴張	西獨 Polysius Siemens	500千 \times	5,146,250	〃 6.5 〃	2年半 4年半	67. 6.19	着手金 15%, 69.3月末 竣工 豫定
忠北시멘트 建設	美 C. Itoh	400千 \times	500,000	〃 6.5 〃	3年半	66.11. 9	66.12.31 竣工 現金借款
大韓洋灰擴張	日 兼松江商	120千 \times	1,144,872	〃 5.5 〃	5年	66.11.29	68.9 竣工豫定
星信化學建設	佛 Polysius	1,000千 \times	14,480,000	〃 5.85 〃	3年据置7年	67. 5. 5	着手金 15%, 70.6 竣工豫定
直接投資		1件	\$ 223,785				
유니온白洋灰 建設	Panama W. Hunt	15千 \times	\$ 223,785	投資比率 內國人外 國人=69:31		64. 4. 7	稼動中
合 計		13件	\$ 88,155,367.25				

資料: 綜合外資導入推進現況 (經濟企劃院經濟協力局刊)

銀行支拂保證事業이 5件에 22,621千弗이며 直接投資는 1件에 224千弗로서 總 13件의 88,155千弗에 達하고 있다. 이를 借款導入事業別로 借款先과 借款額 및 導入條件은 前面 外資導入現況表와 같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特徵을 發見할 수 있다.

첫째, 大部分의 導入外資는 借款形態를 띠고 있다. 즉 直接投資는 유니온白洋灰에 投下된 224千弗 1件에 不過한 反面 借款으로 導入된 外資는 總 87,932千弗로 導入外資의 大部分을 占하고 있다.

두째, 導入된 借款은 大部分이 民間베이스에 依한 商業借款이다. 導入이 確定된 12件 87,923千弗中 商業借款이 9件에 78,780千弗로서 무려 90.4%라는 絶對的 比重을 占하고 있으며 앞으로 建設될 事業도 大部分이 商業借款에 依存하리라 展望된다.

이는 韓國시멘트工業의 發芽期라고 할 수 있는 1950年代에 政府의 支援에 依한 財政借款이나 援助資金에 依해서만이 建設이나 擴張이 可能했지만 60年代부터는 採算性이나 國際信用度에 있어서 企業 스스로가 問題를 解決할 수 있을 程度로 韓國시멘트工業이 成長했음을 示唆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세째, 앞서 外資導入의 一般의 潮流에서 指摘한바 있는 借款先의 多邊化와 日本資本의 進出이라는 特徵은 시멘트工業에 있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導入借款總額 87,931千弗을 提供國別로 나누어 보면 日本이 3件 44,637千弗, 西獨이 3件 18,028千弗, 美國이 3件 10,786千弗, 佛蘭西가 1件 14,480千弗이다. 이는 50年代의 韓國시멘트工業이 오직 美國資本에만 依存하고 있는것과 좋은 對照를 이루고 있다. 이 중에서도 日本資本이 全體金額의 50.8%인 44,637千弗에 達한다는 事實은 注目할만 하다.

네째, 이들 商業借款은 그것이 갖는 本來의 性格에 依해 그 全部가 短期性資金이다. 즉 据置期間을 包含한 償還期間이 모두 10年以內로서 年5.5~6.5%의 利子를 負擔해야 하며 그중에는 15%의 着手金을 要求하는 것이 4件에 이르고있다.

이는 向後 10餘年間은 既導入分の 元利金償還을 爲해서만도 每年 10,000千弗 以上의 外換支

出負擔을 받게 된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다.

다섯째, 이들 商業借款의 大部分이 政府支拂保證에 依해 이루어 졌다. 商業借款總額 78,790千弗中 政府支拂保證事業이 56,169千弗로서 71.3%의 比重을 占하고 있다.

한편 市中銀行支拂保證事業 22,621千弗中에서 星信化學建設을 爲한 14,480千弗을 除外한 나머지는 이미 政府支拂保證에 依해 建設된 既存施設의 擴張이나 政府保證事業建設에 必要한 內資調達用 現金借款이다. 政府支拂保證額 56,159千弗에 財政借款額 9,142千弗을 加算하면 시멘트工業에 依한 國庫債務負擔額은 65,311千弗에 達한다.

이러한 事實은 借款業體의 運營이 不如意할 경우 代拂發生으로, 保證을 擔當한 金融機關의 圓滑한 資金運營을 阻害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國家財政의 運用에도 蹉跌을 招來할 可能性이 潛在하고 있음을 意味한다.

그렇다면 借款導入에 依해 建設된 韓國의 시멘트工業은 어떠한 狀態에 놓여 있으며 果然 政府財政에 負擔을 줄이 없이 導入한 外債를 償還할수 있을 것인가? 이에 關하여 이들 借款業體의 經營分析과 시멘트輸出可能性 如否의 두가지

財務分析比率

(1966.12.31 現在)

	A會社	B會社	C會社	D會社	4會社均
財務構造分析	%	%	%	%	%
流動比率	57.64	236.3	58.2	89.53	110.42
當座 〃	13.32	95.3	13.7	25.94	37.07
固定 〃	150.01	119.7	164.4	434.19	217.08
固定長期適合率	123.84	62.1	113.0	95.01	98.49
負債比率	90.64	145.8	106.4	499.28	210.44
流動負債比率	69.03	53.1	60.8	141.53	81.12
收益性分析	%	%	%	%	%
總資本利益率	3.25	14.4	5.1	9.16	7.98
自己資本 〃	6.21	35.2	10.5	54.92	26.71
賣出額總 〃	32.97	21.7	32.2	39.93	31.7
營業費比率	17.02	8.5	18.3	20.27	16.0
活用性分析	回	回	回	回	回
總資本回轉率	0.50	1.4	0.68	0.87	0.86
外上債權 〃	23.13	178.6	21.63	130.03	88.35
實查資産 〃	4.62	17.4	10.79	8.00	10.20
固定資産 〃	0.64	2.8	0.85	1.20	1.37

方向에서 皮相的이나마 이 問題의 解答을 求해 보고자 한다.

× × ×

現在 國內에서 포트랜드시멘트를 生産하고 있는 6個 業體中 資料求得이 可能했던 4個 業體의 1966年度 決算財務諸表에 依한 財務分析比率은 前表와 같다.

이를 企業의 安定性, 收益性, 利用度面으로 나누어 檢討해 보자.

첫째, 財務構造分析에 있어서 企業의 短期支拂能力을 나타내는 流動比率과 當座比率은 B會社를 除外하고는 모두가 標準인 200과 100에 各 折半도 되지않는 地극히 不良한 狀態를 보이고 있다. 이는 運營資金의 不足에 허덕이는 韓國的 企業의 面貌를 如實히 보여주고 있다.

資本配분에 있어서도 4個會社의 固定比率平均이 217.8%로서 自己資本에 比해 無理한 固定設備投資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特히 D會社의 434.19는 실로 놀랄만한 것이다.

資本構成面에서도 4個會社의 平均負債比率이 210.44%를 보이고 있어 이들 企業이 過重한 負債에 눌려있음을 알수 있다. 이중에서 D會社는 自己資本의 5배나 되는 他人資本을 使用하고 있다. 이러한 不健全 資本의 配分과 構成은 外國借款導入額이 企業의 自己資本能力에 比해 過重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固定長期適合率은 98.49%로 標準에 거의 다달고 있다. 負債比率이 대단히 높기는하나 自己資本의 不足分을 대개가 長期借入金에 依存하고 있어 流動負債比率은 81.2%밖에 되지않으므로 安定性에 威脅을 느껴야할 段階라고는 生覺되지 않는다.

두째, 借款元利金 償還能力에 直接的 關鍵이 되는 收益性을 考察해 보면 4個會社의 平均은 總資本利益率 7.98%, 賣出額總利益率 31.7%, 自己資本利益率 26.71%로 同年의 韓國製造業의 平均總資本利益率 3.85%, 自己資本利益率 11.18% 賣出總利益率 20.33%를 훨씬 上廻하고 있다.

그러나 自己資本利益率이 26.71%라는것은 시

멘트工業의 採算性이 높은데, 起因한다기 보다도 總資本中 自己資本이 占하는 比重이 적은데, 크게 緣由한 것이므로 결코 반갑기만 한것은 아니다. 이렇게 시멘트工業의 收益性이 他製造業에 比해 높은 것이긴 하나 年 7.98%의 收益率로 自己資本의 倍以上에 達하는 借款資金을 10年 以內의 短期間에 償還한다는 것은 元利金償還에 相當한 波瀾을 豫想케 한다.

세째로 活用性에 있어서는 韓國製造業平均이 總資本回轉率 0.86回, 外上債權回轉率 12.95回, 實查資産回轉率 3.79回, 固定資産回轉率 1.61回에 比해 시멘트工業은 總資回轉率 0.86回, 外債回轉率 88.35, 實資回轉率 10.20, 固資回轉率 1.37회로써 固定資産回轉率을 除外하고는 一般製造業界水準을 上廻하고 있으며 固定資産回轉率이 多小平均水準에 뒤 떨어진다라고 해도 시멘트工業이 갖는 資本集約의 性格을 勘案한다면 크게 念慮할 것이 없다고 본다.

以上の 經營分析에서 볼때 自己資本能力을 超過하는 過重한 外資導入에도 不拘하고 短期的으로는 企業會計上 큰 問題를 發生치 않으리라 보겠으나 長期的으로 보아 稼働率이 低下된다거나 超過需要가 存在하고 寡占體制가 維持될때와는 달리 製品價格이 適正水準을 堅持하지 못한다면 財務構造上 限界狀況에 놓여있는 韓國의 시멘트工業은 이들 龐大한 借款資金의 償還에 큰 苦痛을 받게될 것이다.

한편 國民經濟的 立場에서 볼때 支拂利子까지 合하면 1億弗을 넘게되는 巨金을 短期間에 償還해야 한다는 것은 어려운 外換事情에 負擔을 加重시키는 結果를 낳게 되는 것이다.

意欲的인 外資導入의 結果 韓國의 시멘트工業은 餘他製造業에 比較할수 없는 刮目할 만한 發展을 이룩했다. 國內消費量의 67%까지를 輸入에 依存했던 (1957年)것이 每年 20%를 上廻하는 需要增加를 充足하고서도 1964년에는 少量이나마 國內消費의 剩餘分을 輸出할수 있게까지 되었다.

그러나 韓國大企業의 一般的 病弊라고도 할수 있는 過度한 他人資本依存性은 시멘트工業에서도 마찬가지로서 大部分의 業體가 畸形的 財政狀態를 維持하고 있다.

所要外資의 大部分을 外國資本에 依存할뿐 아니라 一部企業에서는 所要內資마저도 現金借款이나 計劃事業과 無關한 資本財導入을 通해 海外로부터 調達하려는 傾向이 있다.

家族會社的 資本의 閉鎖性을 띠고 있는 이들 企業은 自己資本의 不足을 資本公募에 依해 自己資本의 增大보다는 他人資本에의 依存, 特히 손쉬운 外國資本의 導入을 通해 補充하려 한다. 이러한 弊習은 必要以上の 借款導入을 招來하며 그만큼의 外資浪費를 가져 오는 것이다.

韓國시멘트工業이 그간 生産規模나 生産技術에 있어서는 이미 相當한 近代化가 이루어졌다고 하겠으나 資本調達手段에 있어서는 아직도 舊殼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 ×

다음으로 借款元利金の 直接的인 償還能力을 擔게하는 시멘트輸出의 可能性을 打診해 보자.

石油化學, 纖維, 機械, 其他 大多數의 外資導入事業이 原材料나 部分品の 大部分을 海外에 依存하고 있는데 비해 시멘트工業은 中南美에서 導入하는 石膏와 燃料를 除外하고는 國內에 無盡藏한 石灰石, 粘土等을 主原料로 하고 있는 만치 다른 製造業에 비해 後方連鎖效果가 主로 國內産業에 波及된다. 이러한 長點은 시멘트工業이 輸出産業으로 成長할 可能性을 示唆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問題點들이 介在하고 있다.

첫째, 韓國의 시멘트工業은 生産原價面에 있어서 아직도 國際競爭力을 갖지 못하고 있다. 시멘트工業은 다른 어떠한 製造業部門보다도 大量生産의 效果가 크다. 즉 生産施設容量에 따라 生産原價가 크게 影響을 받고 있는데 이웃 日本시멘트工業의 1961年度 工場當 平均年間生産能力 640千 $\%$, 平均 킬른(kiln) 臺數 3.6臺, 平均生産實績 525千 $\%$ 에 비해, 1965年 韓國시멘트工業은 工場當 平均生産能力 340千 $\%$, 킬른(kiln) 臺數 2.0臺, 平均生産實績 323千 $\%$ 로서 日本시멘트工業의 約折半規模에 不遇하고 있다. (韓國産業銀行 調査部刊 “韓國의 産業” 66年版 P 637) 한편

他先進國에 비해 電力, 交通等 社會間接資本의 支援도 不足할 뿐만 아니라 시멘트工業은 資本集約的 産業인 만치 國內의 低賃金도 何等의 힘을 發揮하지 못하므로 國內産業原價는 自然히 國際市場價格을 上廻하고 있는 實情이다.

이미 國際競爭的 經濟單位の 雙龍시멘트 東海工場이 完成段階에 있긴 하지만 시멘트工業이 輸出産業이 되기 爲해서는 앞으로 新設될 工場은 모두가 經濟單位の 規模로 세워져야할 것은 물론이지만 既存施設도 漸次 이에 接近하도록 擴張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둘째, 市場開拓이 容易하지 않다. 시멘트는 輸送負擔으로 遠距離輸出이 어려운 만치 主市場을 東南亞地域에서 찾아야 할 것이나 이곳은 이미 日本이 席捲을 하고 있고 또 東南亞後進諸國들도 다투어 시멘트의 自給自足を 이미 達成했거나 아니면 하려고 努力하고 있는 만치 韓國과 特別한 政治的 紐帶를 갖고 있는 越南이나 地緣的 關係에 依한 對 UN軍 軍納을 除外하고는 우리의 目的을 達成하기가 至難할 것이다.

그러나 보다 根本的인 問題는 韓國시멘트工業이 輸出의 餘力을 가질수 있을까 하는데 있다.

第一次經濟開發 五個年計劃의 成果로 1964년에는 얼마간의 輸出이 可能했었지만 이는 1964-65兩년에 限한 것이었을뿐 1966년부터는 다시 시멘트輸入國으로 轉落했다.

一次五個年計劃期間中 雙龍, 韓一, 現代 忠北等 1,400千 $\%$ 에 達하는 新規施設의 完成을 보았으나 繼續되는 經濟建設을 爲한 需要的 漸進的 增加로 1966년부터는 다시 供給不足을 招來케 된 것이다.

즉 同計劃期間中에는 年平均 23.5%, 1965~7年 사이에는 年平均 34.7%, 1967년에는 前년에 비해 무려 45.4%라는 놀라운 需要增加率을 보였다.

이러한 趨勢는 漸增하는 經濟建設, 이미 着手된 全國에 亘한 高速道路網의 構築 引擎가는 解決해야할 住宅問題들을 勘案한다면 앞으로도 繼續되리라 본다.

그러므로 別添 需給豫測表가 보여 주듯이 年間 需要增加率을 30%로 본다던 現在推進中인 事

國內시멘트 需給豫測

單位：千%

	1967	1968	1969	1970	1971
需要量					
25%增加基準(A)	2,766	3,457	4,321	5,401	6,751
30% " (B)	2,766	3,596	4,675	6,077	7,900
供給量*(C)	2,441	3,060	5,030	6,530	7,810
供給過不足					
(C-A)	325	△ 397	709	1,129	1,059
(C-B)	325	△ 536	355	453	△ 90

*供給량은 前年度末까지 建設된 施設容量으로 產出業이 全部 計劃대로 完成된다고 하여도 1971년에는 도리히 90千噸의 供給不足을 나타내게 된다. 즉 輸出보다도 國內消費를 爲해 새로운 施設의 建設을 서둘러야할 판이다. 그러므로 當分間은 시멘트工業은 輸入代替産業은 될지언정 輸出産業으로의 成長은 期待하기 힘들 것이다.

× × ×

韓國시멘트工業은 外國資本의 힘에 의해 誕生을 보았고 또 外國資本의 援助에 의해서 急激한 發展을 이룩하여 왔다. 그러나 償還能力을 넘는 外資導入은 國家經濟에 크나큰 惡影響을 끼친다는 事實을 감지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企業의 立場에서 볼때는 어떠한 條件의 外國借款이라도 國內의 非正常的인 高金利에 比하면 利로운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나 外債導入에 있

어서는 私經濟的인 立場을 떠나 “弗 竭 血”이라는 어느 西洋政治家의 名言을 銘心하여 外資導入額을 最小限으로 줄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資本을 公開하므로써 우선 必要的인 內資는 如何한 경우에도 海外에 依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은 물론 앞으로는 導入外資에 對한 自己資本負擔率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爲해서는 政府의 積極的이고도 嶄新한 資本市場의 育成策이 必要할 것이다.

시멘트工業이 갖는 比較的 높은 收益性和 活用性은 龍大한 借款導入額에도 不拘하고 短期的으로 큰 問題를 誘發키 않는 것으로 보나 非正常的인 財務構造는 시멘트工業의 發展에 恒시 크나큰 危險性을 潛在하고 있는 것이다.

시멘트工業人들은 經營合理化와 技術革新을 통해 企業採算性提高에 더욱 힘쓰는 한편 資本公開를 통해 財政狀態를 健全化하므로써 代拂發生으로 國庫에 負擔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短時日內에 所望하는 輸出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國際競爭力強化를 爲한 作業을 果敢히 始作하여 언젠가 國內經濟建設이 低調하여 消費剩餘分이 發生할 경우 이를 輸出하므로써 弗貨獲得은 물론 販賣難에 依한 採算上의 損失이나 稼動率低下에 依한 過剩設備를 낚는 事例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開放體制에 臨하여 韓國의 企業으로서가 아니라 世界의 企業으로서의 成長을 爲해서도 國際競爭力強化는 切實히 所望되는 것이다.

〈監修：産銀外國借款部 審査1課長 朴旭圭〉

祖國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自己民族을 爲하는 마음이 누가 없겠는가?

問題는 祖國을 어떻게 사랑하고 民族을 어떻게 爲하는가 하는 方法論 일 것이다.

— 朴正熙 大統領 演說文 中에서 —